

‘여혐’ vs ‘남혐’... 혐오의 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되는 ‘증오범죄’의 불씨

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15 혐오

혐오 전쟁터로 변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위마드 등 혐오 가감없이 표현 베스트셀러 ‘82년생 김지영’ 불똥

최근 사회 전반을 장악한 키워드를 꼽자면, ‘여혐(여성혐오)’과 ‘남혐(남성혐오)’을 빼놓을 수 없다. 대체 남녀 갈등은 어디에서 촉발되며, 견잡을 수 없이 번지는 남녀 갈등의 파장은 어디까지인지 살펴봤다.

◆증오범죄, 시작은 온라인커뮤니티
여혐과 남혐, 이러한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이나 편견의 가장 큰 문제는 해당 감정이 범죄의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바로 ‘증오범죄’다. 지난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범인은 여성에 대한 피해상상을 갖고 있었으며, 손상된 자존감에 대한 분노를 여성을 상대로 표출했다.



82년생 김지영 조남주/민음사

서남부 일대에서 발생한 강호순 사건이었다. 공통점은 범인들의 동기에는 여성에 대한 증오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연령 상관없이 혐오라는 감정에 쉽게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는 ‘일베저장소(일간베스트)’ ‘위마드 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본래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왔지만, 언젠가부터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혐오성 게시글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자극적인 게시글들이 연일 논란을 빚기 시작했다. 일베저장소 게시글 중에는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수준의 ‘여성혐오’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일베저장소’는 여

성과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을 여과없이 드러낸다. 최근에는 ‘일베 박카스남’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74세의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한 한 남성이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듯 ‘일베저장소’에 게시글을 물론, 나체 사진까지 함께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이후 서초구청 직원의 범행으로 드러나면서 마무리됐지만, 구청에서 일하는 직원이 폐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여파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위마드 사이트’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남성을 향한 증오가 가감없이 드러나있으며 혐박성 예고글도 빈번하게 올라와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 위마드 사이트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다른 여성단체들과는 달리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한다. 지난 5월에는 한 위마드 회원이 흥익대 회화수업용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해 사회 파장을 일으켰다. 두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익명을 무기로 혐오 표현을 비롯한 성차별적 문구들을 무수히 쏟아낸다. ‘한남충(한국남성에 벌레 충을 붙인 단어)’과 ‘웁충(여성주의 커뮤니티 위마드 유저를 깎아내리는 말)’은 기본이다.

혐오담론이 시초가되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소통의 창구’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때다. ◆탄생하지도 않은 ‘82년생 김지영’이 대체 왜? 최근에는 완성되지도 않은 영화 한 편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조남주 작가의 베스트셀러 ‘82년생 김지영’이 영화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일부 남성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2016년 민음사에서 출간돼 약 100만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다. 소설은 현재 여성이 겪는 여성혐오와 그 윗세대가 겪은 가부장제의 폐해를 담담히 써내려갔다. 주인공 김지영은 어쩌다 한 번 아이를 데리고 나와 커피 한 잔 마셨다고 ‘맘충’ 소리를 듣는, 80년대 태어난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법한 일을 겪은 보편적인 인물이다. ‘82년생 김지영’은 한국 여성들의 시대상을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은 소설인 만큼 많은 영화 제작에 거는 기대와 지지를 보내는 의견들이 있는 한편, 성 갈등을 조장한다는 불편한 시각들이 맞부딪혀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봄바람 영화사에서 영화 제작을 결정하고, 주인공 역에 배우 정유미가 캐스팅되자 정유미의 SNS에는 악성댓글로 도

배웠다. 앞으로 정유미가 출연하는 작품은 보지 않겠다며 혐박성 글을 남긴 이들도 상당수였다. 개봉하지도 않은 영화에 평점테러도 가해졌다. 현재 네이버 영화 평점은 4.37이며, 영화 제작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한 바 있다. 국민청원을 올린 10대 남학생은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이 바라보는 왜곡된 사회에 대한 가치관이 보편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82년생 김지영’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성평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2년생 김지영’이 소모적인 성갈등을 조장하므로 영화화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에 한 전문가는 영화 제작을 반대하는 이들의 반응이 ‘백래시(사회적 변화에 반발하는 심리 및 행동)’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영화가 갖고 있는 성격과 내용(권위주의, 성 차별 타파)이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자 자신의 원하는 방향(권위주의)으로 회귀하도록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것. 결국 소설 내용이나 영화 제작과는 관계없는 극단적인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달고 있다. 여러가지 논란에도 ‘82년생 김지영’을 제작하는 ‘봄바람 영화사’는 좋은 영화로 보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원식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나노브릭, 中 조폐잉크공사와 ‘가짜’ 막는다

제품 및 위조방지 확대 적용
나노브릭은 국내 민간업체 최초로 중국 조폐잉크공사와 전략적 사업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내 가품을 근절하기 위한 정품인증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나노브릭은 나노 신소재를 기반으로 위조방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조폐공사 산하의 중국 조폐잉크 공사는 위안화(지폐) 및 증서, 증권, 어음, 여권, 증명서 등 각종 보안문서에 사용되는 특수잉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관으로 중국에서 위조방지를 위한 첨단 보안잉크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나노브릭과 조폐잉크공사는 이번 사업 제휴를 통해 나노브릭의 자기색가변 기술과 조폐공사의 보안잉크 기술을 결합해 중국 내 주류, 담배류, 식품,약품, 화

장품 등 다양한 산업군들의 위조방지 제품에 단계별로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아시아 및 글로벌 위조방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긴밀한 파트너십도 구축키로 했다. 양사간 협업을 통해 제작되는 엠태그(M-Tag) 등 정품인증 제품들은 중국 조폐공사의 철저한 관리하에 생산 공급되고, 정품인증 제품이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일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나노브릭은 해당 정품인증 라벨이 부착된 제품의 가품이 나타나면 중국 조폐공사와 공동으로 위조품 업체를 추적하는 ‘가품 추적시스템’도 구축, 피해를 받고있는 국내 정품업체들이 가품의 근거지를 색출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네이버·카카오 해외투자, 1년새 ‘1조원’

지난해 9배 수준으로 급증
사업 성과... 투자 확대 중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올해 해외투자가 작년의 9배 수준인 1조원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카카오와 네이버의 해외 투자액은 9797억원으로 작년 1116억원의 8.8배에 달했다. 네이버는 일본 모바일 메신저 자회사 라인의 주권 관련 사채권 취득분 7517억원을 포함해 해외투자액이 작년의 8.9배인 8725억원으로 급증했다. 네이버는 올해 미국 비즈니스 플랫폼 ‘하니북(HoneyBook)’과 회원제 소

Table with 4 columns: Company, 2016, 2017, 2018. Rows for 네이버 and 카카오.

량을 투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해외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성과가 나고 있어 해외투자를 확대해 사업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국내에서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느리게 진행되자 고속 성장 가능성이 엿보이는 해외 업체에 대한 투자로 눈길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네이버가 라인에 거액을 투자해 핀테크 등 신사업 거점이 한국 대신 일본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승차공유 시장이 육성되지 못하는 사이 SK와 현대차, 미래에셋 등이 중국이나 동남아 승차공유 업체에 수백억원 이상 투자했다며 포털 대기업 등이 해외 업체 대신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할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대서울병원, 10월 준공... 내년 2월 진료 개시

이대목동병원 개원 25주년 기념식
이화의료원은 이대서울병원이 이달 말 준공하며 내년 2월에 진료를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지난 5일 개최된 이대목동병원 개원 25주년 기념식에서 이대서울병원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이대서울병원은 10월 말 계획대로 준공해 11월 12일 준공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2019년 2월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단계적으로 병상 수를 늘려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1014병상 모두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대서울병원 개원 준비 단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개원을 위한



지난 5일 개최된 이대목동병원 개원 25주년 기념식에서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화의료원
철저한 준비를 위해 이화의료원 교직원 모두가 힘을 모으자”면서 “이대서울병원 개원으로 변화되는 의료원의 양병원 체계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미국서 1300억원 규모 의약품 공급

‘렌플렉시스’ 5년간 독점 계약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에서 1300억원 규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입찰에 성공했다. 7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파트너사인 MSD(미국 머크)는 우리의 국가보훈처에 해당하는 미국 재향군인부와 ‘렌플렉시스’ (성분명 인플릭시맵)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1억1749만6000달러 규모의 렌플렉시스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렌플렉시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다국적제약사 안센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다.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즘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건선 등에 쓴다.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받아 같은 해 7월 미국 머크가 현지 출시했다. 재향군인부는 미국의 퇴역군인을 위한 정부 산하 기관으로, 의료나 금융 등 각종 분야의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 전역에서 거대한 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는 이번 입찰 성

공이 렌플렉시스의 미국 시장 안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향군인부를 통해 미국 전역에 렌플렉시스를 공급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향군인부가 바이오시밀러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데에도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분석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이번 입찰 성공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미국 시장에서 5년간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lee@